

03 고등학교 고르기

진학 실적 읽는 법

중복 합격과 N수가 섞여 있습니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섞여 있나	3
03 왜 그렇게 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세 가지가 숫자를 부풀립니다 — 중복 합격 · 재수생 · 세는 범위
- ◆ 「합격」 인지 「진학」 인지 — 이 한 낱말이 중복을 가립니다
- ◆ 충원을 75%까지 합쳐 세면 왜 부풀는지 — 구조적인 까닭
- ◆ 설명회에서 물을 네 마디 · 학원 실적도 같은 자로 보시라는 말씀

01 · 먼저 사실부터

이건 공시가 아닙니다

「그 학교는 작년에 서울대를 다섯 명 보냈대요.」

학교 설명회에서, 현수막에서, 카페 글에서 이런 숫자를 보십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 **대학별 진학 실적은 공시 항목이 아닙니다.** 학교알리미에 어느 대학에 몇 명 갔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학교가 스스로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할 의무가 없고, **세는 방식도 학교가 정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센 숫자인지 모른 채 견주면 안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공시되나
졸업생 진학 비율	공시됩니다 — 진학·취업·기타
대학별 합격자 수	공시 항목이 아닙니다
재수생 실적	공시 안 됩니다
학교 발표 진학 실적	학교 재량 —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그 숫자를 어떻게 읽는가**를 다룹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학교 발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2 · 무엇이 섞여 있나

세 가지가 숫자를 부풀립니다

Q. 하나 — 중복 합격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붙습니다. 수시 여섯 장을 쓰고 둘셋에 붙는 일이 흔합니다.

그 학생을 대학마다 한 명씩 세면 한 사람이 세 명이 됩니다. 「인서울 60명」이 실제로는 **서른 명** 남짓일 수 있습니다.

가르는 법 — 「합격자」인지 「진학자」인지를 보십시오. 진학자는 실제로 등록한 사람이라 **한 명이 한 번만** 세어집니다. 「합격」이라 적혀 있으면 중복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Q. 둘 — 재수생(N수)

그 학교를 졸업한 **재수·삼수생의 합격**을 함께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생도 그 학교 출신이니 넣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3학년이 이만큼 갔다**」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가르는 법 — 「**현역**」이라는 말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없으면 물어보십시오. 설명회에서 「**이 숫자에 재수생이 포함되니까?**」 한 마디면 됩니다.

Q. 셋 — 세는 범위

「인서울」「주요대」「상위권」 같은 말은 **정해진 뜻이 없습니다**. 학교마다 어디까지 넣을지 다르게 정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인서울 몇 명**」을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같은 자를 쓴 숫자가 아닙니다.

가르는 법 — 어느 대학을 넣었는지 **목록**을 물으십시오. 목록을 주면 견줄 수 있고, 안 주면 견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셋을 합치면 **같은 학교의 같은 해 실적**이 두 배 넘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학교마다 발표 방식이 다르며,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03 · 왜 그렇게 되나

숫자를 부풀리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나 풀어 두겠습니다. 학교가 속이려고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사정
학교도 모릅니다	졸업생이 어디에 등록했는지 다 알기 어렵습니다
합격이 먼저 나옵니다	등록은 나중이라 발표 시점에는 합격 수만 있습니다
형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학생을 모아야 하니 좋게 보이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 화내실 일이 아니라 읽는 법을 아실 일입니다.

충원까지 생각하면 더 벌어집니다

앞서 본 대로 수시 충원율 중앙값이 75%이고, 교과는 122%입니다. 정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충원까지 합쳐 세면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합격」으로 세는 숫자가 부푸는 구조적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나

공시된 진학 비율은 믿을 만합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한 번 세어집니다. 다만 어느 대학인지는 안 나옵니다.

학교가 발표한 대학별 숫자는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학교의 여러 해를 보시면 그나마 견줄 만합니다 — 한 학교 안에서는 세는 방식이 대체로 같기 때문입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및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충원율). 학교 발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물어볼 것과 점검표

설명회에 가시면 이 넷을 물으십시오. 답을 들으면 숫자가 읽힙니다.

#	물을 말	왜
1	「이 숫자는 합격입니까 진학입니까?」	중복이 들어 있는지 갑니다
2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역 실적인지 갑니다
3	「어느 대학까지 넣으셨습니까?」	범위를 알아야 갑니다
4	「졸업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비율로 봐야 뜻이 있습니다

4번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인서울 60명」은 졸업생이 200명이면 30%이고 500명이면 12%입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비율로 보셔야 학교끼리 견줄 수 있습니다.

진학 실적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이 숫자가 공시인지 학교 발표인지 아는가
- ☐ 합격 인지 진학 인지 확인했는가
- ☐ 재수생 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인서울」「주요대」의 범위 를 물어보았는가
- ☐ 졸업생 수 를 알고 비율로 보았는가
- ☐ 같은 학교의 여러 해 를 보았는가
- ☐ 다른 학교와 같은 자로 견주고 있는가
- ☐ 공시된 진학 비율 도 함께 보았는가

일곱째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A학교의 「합격 기준 숫자」와 B학교의 「진학 기준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견준 것이 아닙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실적 숫자도 같은 자로 보십시오. 저희를 포함해 학원이 내는 실적에도 중복 합격과 재수생이 섞일 수 있습니다. 물으실 말은 학교에 물을 때와 같습니다 — 「합격입니까 진학입니까」, 「몇 명 중 몇 명입니까」. 이 두 마디에 답하지 못하는 숫자는 견줄 수 없는 숫자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진학 실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그럼 진학 실적은 아예 보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되 무엇을 센 숫자인지 알고 보시면 됩니다.

쓸모 있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세 해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한 학교 안에서는 세는 방식이 대체로 같아서,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읽힙니다.**

그리고 **공시된 진학 비율**을 함께 보십시오. 「졸업생 가운데 몇 %가 진학했는가」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 견줄 수 있습니다.

학교끼리 대학별 숫자를 견주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건 자가 다른 숫자입니다.

Q. 1등이 어느 대학 갔는지를 보라던데요?

커뮤니티에서 도는 방법입니다. **뜻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 그 학교 최상위권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이니까요.

다만 **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학생이 유난히 잘했을 수도, 그해가 특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으로 학교를 판단하는 것은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1등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1등이 어디 갔는지보다 **중간이 어디로 가는지**가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더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건 **공시된 진학 비율**에서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진학률이 높으면 중간층도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진학 실적은 **공시가 아니라 학교가 발표한 숫자**입니다. 「**합격입니까 진학입니까**」와 「**몇 명 중 몇 명입니까**」를 물으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과 공개된 전형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학교의 숫자는 실지 않습니다.** 학교 발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이며,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